



허위종결 경찰, 63건 실종시스템 미입력·삭제

경찰, A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 완료
허위종결은 확인되지 않아… 사건 검찰 송치 예정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의 21%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30대 A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은 298건으

로, 이 가운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직접 해제 처리한 실종사건은 235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3건에는 A경장이 직접 처리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제한 사건도 포함됐다. 다만 63건이 허위 종결 처리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A경장은 같은 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은 사건을 해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과 비슷한 기간 근무한 B경찰관은 137건을, C경찰관은 87건을 각각 해제 처리했고, 이들보다 근무기간이 짧았던 D경찰관은 약 11개월간 92건, E직원은 약 1개월간 13건을 각각 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처리에는 보통 후배 경찰이 맡는다. 당시 팀에서 A경장이 막내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약 20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다. 경찰은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1일 브리핑을 열어

A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3개월여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또다른 실종자 B씨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 51일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가파도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던 50대 숨져

서귀포 해상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하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다른 дай버들과 함께 수중 정화활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동료 다이버에게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자치경찰, 전국체전 경기장 불법촬영 점검

해수욕장·관광지 57곳 대상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9~10월 전국체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고 3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선수단과 관

람객이 이용하는 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임시화장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해수욕장 12곳과 주요 관광지 45곳 등 다중이용시설 57곳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물카 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다. 양유리기자

수입 돼지고기·배추김치→‘제주산’ 둔감

원산지 거짓표시 9곳 형사 입건… 미표시 13곳 과태료

중국 배추김치 2.59t·포르투갈산 돼지고기 1.24t 적발

제주에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등 2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광지 밀집 상권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에는 총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백김치) 6건, 돼지고기 3건, 콩 2건 등이었다.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밀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소비자가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해당 배추김치의 판매

량은 2.59t에 달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돔배고기와 고기국수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24t에 이르렀다.

국내산 돼지고기 목덜미살을 구입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적발됐다. 제주산 콩과 중국산 콩가루를 사용해 만든 콩국수를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있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상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26개소와 미표시 28개소 등 모두 54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관광지에서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국민이 지켜봅니다”

허위종결 풍자 공익광고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를 풍자하는 공익광고가 설치됐다.

광고제작자 이재석씨는 전날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게릴라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광고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한 곳을 응시하는 포스터와 함께 시선이 향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됐고,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아래에는 ‘경찰의 신뢰회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장도 기재돼 있었다.

이 광고는 장모씨 실종사건 당시 A경장의 허위종결로 인해 주변 CCTV 영상이 보존기간 경과로 사라져 실종자 수색이 더디지는 등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석씨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설치물은 일시적 퍼포먼스 형식으로 당일 자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성산일출봉 찾은 외국인관광객들 31일 세계자연유산인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일출봉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늦여름 날씨 속에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비 최대 90만원 지원
서귀포시, 1인 24시간 9만원·12시간 4만5000원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기준,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도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해외 거주·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환자다. 다만 민간보험 등을 통해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90만원이다. 간병시간 기준 24시간(1일 9만원, 최대 10일) 또는 12시간 기준(1일 4만5000원,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병원 입원 중 주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원확인서(병명기재), 간병인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간병 종료 후 청구서류 검토를 거쳐 간병인 또는 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 2022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